(주)모던하이테크, LED산업의 상생협력에 앞장서다

'경기도 LED · 태양광 산업 대 · 중소기업 상생선포식'에 이어 독일 opsira,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결

취재 | 박지연 기자

모던하이테크가 LED산업의 상생협력에 적극 앞장선다.

(주)모던하이테크(대표 김명중)는 독일 opsira(대표 Juergen P. Weisshaar)와 함께 지난 7월 14일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도 LED · 태양광 산업 대 · 중소기업 상생선포식'에 참가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테크노파크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녹색산업 중의 LED 및 태양광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부가 직접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만큼 정치, 기업, 대학의 LED 및 태양광 산업 분야와 관련있는 많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 및 기초지자체 단체장 등 경기도 정치주요인사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최준영 총장을 비롯하여 LED/태양광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삼성LED, 서울반도체, 포스코LED, 신성솔라에너지, LG이노텍 등 LED 태양광 분야 협의회 회원기업이 이번 협약체결식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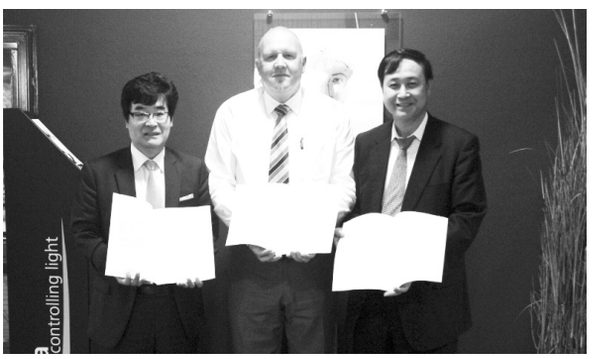
김문수 경기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세계 LED, 태양광 시장을 우리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신성솔라에너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체 및 기관에서 제품 홍보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첨단 기술동향에 대한 주제강연도 진행됐다.

외국기업으로는 독일 opsira와 일본 도시바머신이 참가하여 해외 기술동향에 대한 발표를 했다. 두 회사는 LED 생산비용절감 이슈를 공통으로 지적했다.

'유럽지역 LED 기술 및 시장동향'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Juergen P. Weisshaar(opsira CEO) 사장은 LED 생산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광학측정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경기도 LED · 태양광 산업 대 · 중소기업 상생선포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중앙에 Juergen P. Weisshaar)



▶ 산학협력 체결 후 기념촬영을 했다.(왼쪽부터 모던하이테크 김명중 사장, opsira의 CEO Juergen P. Weisshaar,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현동훈 교수)

"LED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측정(Measurement), 보정(Calibrations), 시제품 테스트(Test)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탁월한 광학측정 시스템의 역할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LED · 태양광 산업 대 · 중소기업 상생선포식' 이 있은 다음날인 7월15일에는 김명중 사장(모던하이테크 CEO)과 현동훈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나노공학과)가 독일 opsira사를 방문하고 Juergen P. Weisshaar 사장과 함께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모던하이테크와 opsira사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의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산학간의 양방향적인 협력을 내실화하고 산학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잠깐>

LED · 태양광 업종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경기도는 LED · 태양광 · 업종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위해 우선 LED 분야 60개사, 태양광 분야 40개사가 참여하는 협력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력협의회는 소속 중소기업과 대학, 산업기술시험원 등과 연계해 관련 공동 기술 개발, 소요비용 지원, 기술정보 제공,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한다.

삼성LED, 서울반도체, 포스코LED, 신성솔라에너지, LG이노텍, 주성엔지니어링 등 이 사업에 참여한 도내 6개 대기업은 관련 분야 우수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등 상생협력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 대기업은 특히 도가 계획 중인 '우수기술 시제품 검증비용 지원' 등을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협력업체로 등록할 방침이다.

우수기술 시제품 검증비용 지원 사업은 도내 관련 중소 ·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500만원 이내에서 관련 기술의 제품화, 금형 및 디자인 개발, 시험, 규격인증, 특허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3개 참여 대학은 협력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며, 산업기술시험원은 중소기업이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시험분석, 기술검증 등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시행기관인 경기TP는 전담기구인 'LED, 태양광 협력 협의회사무국' 을 운영하고 녹색기술 정보포털 및 DB를 구축하여 협력협의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